

# “北, 이달 중순께 ICBM 발사 가능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중순께 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통상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위치를 가게 되면 이를 조립하는 데 2~3주가 걸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늘 그랬듯이 정치적으로 연제가 가장 효과적이냐를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SBS라디오 출연 밝혀

###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적”…핵 주권론엔 반대

따진다. 아마도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그 때쯤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에 대해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부정부적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또 한미간 ‘핵우산 명문화’ 추진과 관련, “핵우산 제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속에 매년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명시된 사항”이라며 “그런 조치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한 데 대해서

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일부에서 자위형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 주권론’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한국의 기술적 능력을 보편 못 할 이유가 없지만 한반도 주변에 핵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방법을 묻는 질문에 “군사적 수단이 아닌 유일한 수단으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금융 제재”라고 강조했다.



1일 오후 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부아손 라오스 총리,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응웬 쯘 쯘 베트남 총리, 이명박 대통령, 아피싯 태국 총리,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데인 세인 미얀마 총리,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 /연합뉴스

# 228명 탑승 佛 여객기 실종

## 브라질 연안 상공서

승객과 승무원 등 228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소속 AF447편 여객기가 1일 대서양 브라질 연안 상공을 비행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파리

국제공항 관계자가 밝혔다.

지상 관제탑과의 교신은 이날 항공기가 파리의 샤를 드 골 공항을 향해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공항을 이륙한 직후 끊겼다.

파리 샤를 드골공항 측은 “당초 이

항공기는 오전 11시10분(현지시간) 파리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 관계자는 “우리는 항공기 실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몇 시간 전에 항공기가 레이더 스크

린에서 없어졌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항공 당국은 즉각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위기대응팀을 설립,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AFP가 전했다.

프랑스 정부도 곧 레이더에서도 이 항공기가 사라졌다고 확인했다. 장-루이 보를르 환경장관은 “지금도 이 미 연료도 소진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를르 장관은 여객기가 납치됐을 가능성은 부인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보를르 장관과 도미니크 뷔스로 교통당국 국무장관을 샤를 드골 공항에 파견, 상황을 파악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한편, 브라질은 자국의 공군을 동원해 실종 여객기 수색에 나섰다.

사고 여객기는 에어버스의 최신 A330-200 기종이다. 이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승객 216명, 승무원 12명 등 모두 228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아세안 정상 북핵 언론발표문 채택

## 북핵 실험 규탄·조속한 6자 복귀 촉구

제주 한·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론발표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이날 한·아세안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론 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 언론발표문에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

는 대응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와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공동성명에 언급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별도로 내는 것이 맞다는 말이 나왔고, 우리 외교 당국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한 것이 주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함께 투쟁하자” 황장엽-김현희 12년만에 만나

황장엽(86)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범인 전 북한공작원 김현희씨를 12년만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1

일 조각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황 전 비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와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안부를 서로 주고 받으며 “앞으로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전 비서는 1997년 탈북, 입국한 뒤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사면돼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 있던 김씨와 만난 바 있다.

# GM 파산 신청...조기회생 촉각

제너럴모터스(GM)가 1일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고 나서 이미 파산보호에 들어간 크라이슬러와 함께 얼마나 빨리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M은 파산보호를 통해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GM으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새 GM의 지분은 현재 계획대로라

면 정부가 72.5%, UAW의 퇴직자 건강보험기금(VEBA)이 17.5%, 채권단이 10%를 보유해 정부가 대주주인 사실상 ‘국유기업’이 된다. 정부 지분은 미국이 60%, 캐나다가 12.5%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GM의 파산보호 절차가 60~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파산보호를 통해 당치를 크게 줄이게 된다. GM은 작년엔 6만2천명이던 공장 근로자 수를 내년 말까지 4만명으로 줄이고, 6천246개 개인 딜러망 중 2천600개를 내년까지 줄일 예정이다.

GM은 일단 파산보호에 앞서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조정에 상당부분 동의를 얻어냈지만 파산법원에서 채권단의 반대가 거셀 경우 회생절차가 느려질 수도 있다.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The solution for passing the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exams is at Hanbit) and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hakwon).

Advertisement for The One (제원주 1위)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a trophy and the text "제원주 1위" (The One, #1 in the industry) and "수많은 사람, 그러나 단 한사람" (Many people, but only one person).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There is Namgol-dang in Gyeongsang-do) and contact information.